

현장 속으로 뉴욕공립도서관, 16세기 한국 유물 미디어 공개

# 600년 세월이 생생한 터치...작품마다 시간여행

## 고려시대 화엄경·8폭 평양조감도 등 9점 깨끗한 보존 상태에 여기 저기서 탄성

600년 전 한국 유물들이 뉴욕공립 도서관(NYPL)에 소장돼 있다. 뉴욕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인 NYPL에는 셰익스피어의 첫 작품집이나 토머스 제퍼슨의 독립 선언문 자필 원고 등 희귀본도 다수 소장돼 있고 희소 가치가 있는 소장품들은 요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이 곳의 한국 유물들은 사실상 올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선을 보였다. 1951년 '이론행실도' 목판본이 이 도서관에 자리를 잡은 이후 64년 만에 여덟에서 깨어나 방문객을 맞이하게 된 것. 본지는 14일 미디어와 코리안아트스사이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큐레이터 투어를 동행 취재했다.

오전 9시30분쯤 맨해튼 42스트리트와 5애비뉴에 위치한 뉴욕공립도서관 본관 뒷문. 취재진과 한인·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코리안아트스사이터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16세기 평양의 모습과 고려·조선시대 한국 유물을 만나기 위해서다. 도서관 오픈 시간인 10시에 조금 앞서 입장해 3층으로 올라가니 복도 끝에 위치한 미러업 앤 아이러 D 윌라흐 미술·관화·사진실 앞에서 큐레이터 메들레인 비전이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자 2개로 나뉘어진 테이블에는 총 9점의 한국 유물들이 진열돼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서 8폭 평양조감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관화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선들이 16세기 평양의 모습을 세밀하게 담



14일 맨해튼 미드타운의 뉴욕공립도서관 본관 미술·관화·사진실에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급 한국 유물들이 언론과 코리안아트스사이터 회원들에게 공개됐다. 메들레인 비전 큐레이터(왼쪽 6번째)가 소장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8폭 평양조감도 목판화. 16세기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평양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아닌 작품으로 수세기 동안 여러 주인을 거쳐 도서관에 기증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8폭에 걸쳐 대동강이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능라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모란봉과 부벽루·율밀대·대동문·보통문 등이 한자로 적혀 있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날 공개된 소장품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 고려시대 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경전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1360~1390년 사이로 추정). 60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뉴욕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만큼 상태가 잘 보존됐다. 큐레이터가 "1955년 일본에서 공수해 온 것으로 판화가 아니라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진짜 금가루로 작업한 것으로 고려시대 불교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말

하자 여기 저기서 탄성이 나왔다. 조선 세종 때 쓰여진 도덕서로 유교 도덕사상에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5가지 인륜을 담은 '삼강행실도' 1434년 목판본에는 그림과 함께 세종대왕이 발명한 훈민정음, 한자, 그림들이 뒤섞여 있었다. 큐레이터가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세종 때 간행된 삼강행실도의 완결편이라할 수 있는 이론행실도 1550년 목판본,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자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이이가 지은 학문입문서 격몽요결 1577년 목판본도 눈에 띄었다. 그 옆으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만한 경사스러운 일들을 골라 그린 풍속화 '평생도'가 테이블에 펼쳐져 있었다. 한 남성의 출생과 성장, 장원 급제, 금의 환향, 공직 발령, 높은 직급으로의

승진, 금혼식으로 추정되는 장면들이 잘 묘사돼 있다. 한국을 비롯,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코리안아트스사이터 회원 헨리 갓프리 뉴욕메디칼칼리지 교수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 놀랐다"며 "더구나 수백 년이 지난 유물들을 유리관에 넣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동화문화재단 큐레이터 현수정씨는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유물들을 우리가 찾는 것은 문화재 반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환까지는 못하더라도 뉴욕시에서 그동안 잠자고 있는 유물들을 모아 전시라도 하게 된다면 연구자들은 그곳에 찾아가 연구를 할 수 있고 한인 후세들은 역사를 배울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황주영 기자

→A-1면 '한국어'서 이어집니다 이후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과거 AP 중국어 채택을 위해 보인 중국 정부의 노력은 "중국어를 수출한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다. AP 중국어 수업과 시험 개발을 위해 수십만 달러를 캘리포니아에 지원하는 한편, 교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

난 2013년 AP 중국어 시험을 치른 학생은 4983명에 달했다. 이는 AP 외국어 과목 시험 가운데 스페인·프랑스어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5년 내 채택 목표 =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한국어 교육계의 의견이다. 길옥빈 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은 "5년 안에 AP 한국어 채택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정규 중·고교를 현재의 80개 수준에서 150~200개까지 끌어올린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한국어의 경우 전국의 주말 한국학교 수가 무수할 수 없을 만큼 많고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AP 한국어에 대해 한

인 학생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규학교 한국어반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타민족 학생 수가 훨씬 많은 것도 긍정적이다. 한국어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한국어반의 타민족 학생 수는 2009년 1928명에서 2013년 653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초 현대언어협회(MLA)가 발표한 '대학 외국어 수강생'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사이 한국어 강좌 수강생은 44.7%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1만 2229명으로 중국어(6만1055명)와 일본어(6만6740명)에 크게 못 미친다.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AP 한국어와 같은 공교육의 뒷받침이 없는 저변 확대가 쉽지 않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We are with you®  
**WooRee** 우리보험 INSURANCE.COM  
"트럭&밴보험전문" 사업 자동차 주택 생명 건강  
NJ 201.944.9655 NY 718.994.9655

**셀즈맨 & 와이너**  
사고·상해 변호사  
교통/낙상/의료사고  
건축현장/육창  
40년 경력 / 신속 해결 / 최대 보상  
**한인사무장 에드워드 장**  
(718) 797-1110 (917) 578-6968  
노던 154가 체이스은행 뒤

25년 역사 28000명 결혼성사  
한국계 사위 며느리를 찾는 부모님 위한  
**결혼정보회사 선우 대표**  
**이용진의 결혼네트워크**  
(201)-771-3118 www.couple.net

**법무법인 김&차**  
LAW OFFICES OF KIM & CHA, LLP  
**베이사이드 확장이전**  
210-08 Northern Blvd. Suite 4, Bayside, NY 11361

지난 20년간 수 많은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법무법인 김&차**가 **베이사이드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서 많은 재판 및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의 최대 보상**을 자신합니다.

☎ **교통사고 & 상해소송**  
▪ 자동차, 버스, 기차, 트럭, 오토바이 사고 ▪ 고속도로 주행 사고  
▪ 보행중 사고 ▪ 보험회사 상대소송 ▪ 의료사고, 과실  
▪ 건설 현장 사고 ▪ 중업원 상해 사고 ▪ 낙상 사고

☎ **이민법**  
▪ 취업 비자 (H-1B) ▪ 지상사 주재원 (L-1) ▪ 무역인 비자 (E-1)  
▪ 투자 사업 비자 (E-2) ▪ 취업 이민 (EB-1 to EB-5)  
▪ 투자 이민 (50만불/100만불) ▪ 종교 이민 및 종교 비자 ▪ 시민권 획득  
▪ 학생 비자 연장 및 변경 ▪ National Interest Waiver

☎ **가족이민/추방소송 변호/가정법**  
▪ 직계가족 초청 ▪ 1~4순위 가족초청  
▪ 형사건 및 이민법 위반 추방소송 변호  
▪ 합의이혼 및 소송 이혼

☎ **상법/파산**  
▪ 상표등록, 상법 소송 ▪ 계약 위반 ▪ 채권 소송 ▪ 파산  
▪ 부동산 투자 자문 ▪ 국제 투자 자문

☎ 김수현 변호사 ▪ 차현구 변호사 ▪ Stanley So 변호사  
☎ 장주연 변호사 ▪ Heather Chung 변호사  
☎ Michael Robb 변호사 ▪ Richard Bell 변호사 ▪ Mark Getzoni 변호사

☎ 뉴욕, 뉴저지 및 커네티컷 변호사 ▪ 뉴욕 연방법원 변호사 ▪ 미 이민 변호사 협회회원  
☎ 연방 파산 법원 변호사 ▪ 뉴저지 연방법원 변호사 ▪ 미 재판 변호사 정회원

**베이사이드 718.888.9500**    **맨해튼 212.213.4400**    **뉴저지 201.227.1002**    **롱아일랜드 516.622.2216**  
210-08 Northern Blvd. Suite 4, Bayside, NY 11361    1250 Broadway, 36th Floor, New York, NY 10001    440 Sylvan Avenue, Suite 250, Englewood Cliffs, NJ 07632    1979 Marcus Avenue, Suite 210, Lake Success, NY 11042